

내가 쓰는 글이 나를 돌본다

여성의 글쓰기란

꽃별 김화숙

글쓰기-여행-대화-목소리-자전적 에세이-스스로 처방



좋은 글을 위한 점검

- 매력적인 제목, 소제목, 도입부, 첫문장.
- 글 한 꼭지에 한 가지 이야기를.
- 한 단락엔 한 가지 이야기만.
- 단락에서 중요한 말을 먼저 하기.
-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기로.
- 일단 완성하고 고쳐 쓰기.
-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기.
- 다 쓴 글을 소리 내 읽어보기.

좋은 글을 위한 점검 질문

1. 글 쓴 사람이 보이는가?
2. 질문이 들어있는가?
3.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4. 이 글이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
5. 애매하게 입장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봄 글쓰기, 여행 셋째 날

1

왜 여성의 글쓰기인가?

인용, 주장이 들어간 정치적 글쓰기 안내

2

내가 쓰는 글이 나를 돌본다

써 온 글 낭독과 나눔

3

내가 읽는 글이 나를 돌본다

서평, 칼럼, 편지, 유서 구조 분석 수다

4

여성의 글쓰기 실습

인용, 주장의 편지/유서 도입부 쓰기

5

마무리

글 & 여행 셋째 날 소감 나눔

누가 희생?



ANZAC Memorial, 침묵의 방 <희생>

누구 입장에서



지젤 팰리코(72)
7.14 프랑스 혁명 기념일
레지옹 도뇌르 최고 훈장

“성폭력 생존자 페미니스트 영웅”

“용기가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다.”

“수치심은 가해자들의 몫이다.”

누구를 편들까?



최말자(79) 3.8 올해의 여성운동상

6년 전 성폭력을 시도하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됨. 정당방위였지만 중상해죄로 6개
월간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음.
2020년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재심 청구.

7월 23일 공판기일에 직접 참석해
최후 변론할 예정.

2025.07.15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 부족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이는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성평등 정책 복원과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의 언어

당어 하나, 평등 하나가 성평등 서울을 만든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새마을 포궁

최저작 첫작품

미혼 비혼

여직원 직원

여자가·남자가 사람이·어른이



乳母車

유모차

유아차

乳兒車

低出生

저출산

저출생

低出生

친할머니·외할머니

할머니

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디지털 성범죄

시각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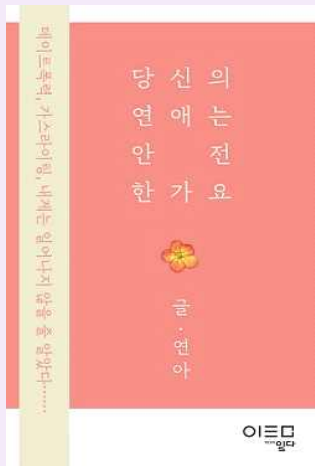
그 그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이 내 가정을 파괴했다."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해서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기에 그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

페미니즘 언어



“너를 많이 사랑해서 그래.”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 해줘?”

사랑이라는 말로 정당화되는 폭력들.

데이트폭력, 가스라이팅,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다...

성인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한다는 데이트폭력.

여성의 글쓰기



“남성을 기본값으로 삼아온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모든 여성은 언제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는 숙명에 놓인다. 글쓰기가 나로부터 출발해 주변을 관찰하고, 공감하고, 흡수하고, 대화해가는 소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에게 적합하다.”

언어를 찾아 헤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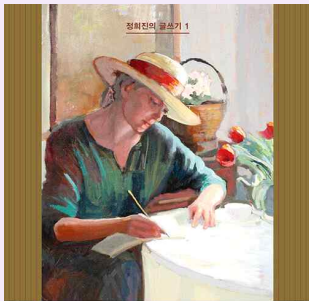
“남성의 언어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찾아 헤매는 숙명에 놓인다.

그 언어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지워진 존재로서 경험의 기록이며,
자신을 배제하는 체제에 던지는 질문이다.”

그래서 젠더 렌즈



싸우는 글쓰기



나보다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려고 쓴다

정희진 지음

김영
사

약자에게는 폭력이라는 자원이 없다. 이런 세상에서 나의 무기는 나에게 '있되', '적'에게 없는 것, 바로 글쓰기다. '적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사고방식. 사회적 약자만 접근 가능한 대안적 사고, 새로운 글쓰기 방식, 저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만 보이는 세계를 드러내는 것. 내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소심해서 주어진 지면조차 감당 못하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내 억울함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세상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품위 있게' 싸우는 방법, 글쓰기다.

정치적 입장



정치적 글쓰기는 결국

나의 좌표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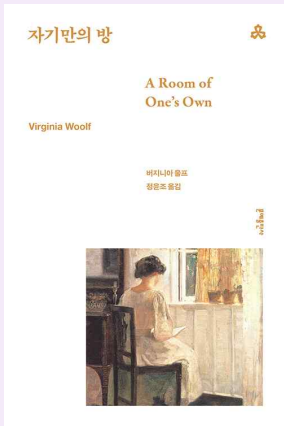
내가 바라는 이상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다.

오늘의 나를 규정하고

내일의 세상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만연한 적대감



“글쓰기에 놀라운 자질을 가진 여성조차 책을 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더욱이 정신이 분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여성의 글쓰기에 대해 만연한 적대감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 버지니아 울프

페미니즘 백래시



도태나 변화나

폭력과 가해, 격분과 괴롭힘,
임계점을 넘은 해로운 남성성들의 등장

폭력하는
남성
들

동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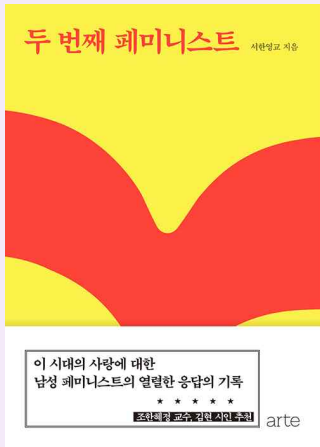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권김현영	김효정	유호정	이리메
이우상	이한	추지현	황유나 지음

흥기난동 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벗방’ 시장, 사이버 래커, 남초 커뮤니티의 ‘페미 사냥’, 서부지법 폭동 등을 개별적 현상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성’은 남성이라는 성별 그 자체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 속에서 성차별이 축적되며 생긴 폭력적인 태도와 문화, 즉 성차별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람



“(취)약한 아내를 선택함으로 그는 ‘금남의 세계-돌봄’에 진입할 수 있었고 육아의 시간을 통해 ‘마술적 마주침’이 일어나는 실존의 세계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다. 강함이 아니라 (취)약함을 선택한 그는 남성적 동일성을 위해 억압했던 자신의 여성성을 찾았고, ‘여성스러움과 게이스러움과 장애인스러움을 긍정’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

-조한혜정

사각지대



**경북도, 돌봄 사각지대
'비혼 출생아' 품는다**

제도를 넘어



가족같은 남? 남같은 가족?

가족이 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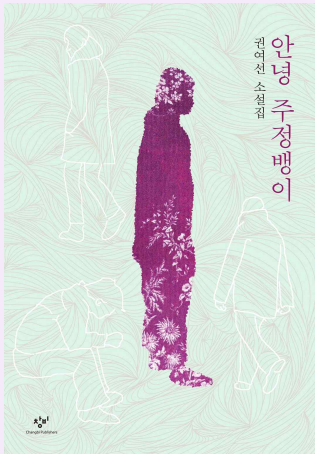
자식 도움 1도 필요 없다,

인생 2막을 내돈내산 나홀로라이프로 즐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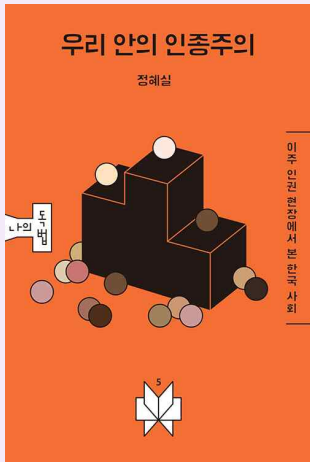
이놈의 몸이 말썽!

85세 대구의 꼬장 할매 정말임 여사의 선택은?

사각지대들



내 문제는 모두의 일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차별에 관한 이야기, 내가 연대한 수많은 이주 인권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는 내가 참여한 활동과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엔 내게 닥친 부당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었다.

- 정혜실

입장을 드러내야

[공동성명] 2025.07.16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mw. 안산여성노동자회
ANSAN WOMEN WORKERS
ASSOCIATION



모두의 문제 돌봄



돌봄은 정치다



돌봄복지 공약 발표

**'돌봄 불평등' 끝내고
무상 돌봄 시대 만들겠습니다**

2025. 05. 29.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5 권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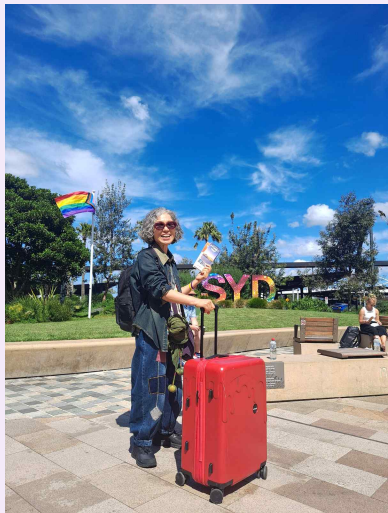


정치적인 글쓰기

같은 사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좌표 위에 서 있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글들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정치적 글쓰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좋은 글을 위한 점검

- 매력적인 제목, 소제목, 도입부, 첫문장.
- 글 한 꼭지에 한 가지 이야기를.
- 한 단락엔 한 가지 이야기만.
- 단락에서 중요한 말을 먼저 하기.
-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기로.
- 일단 완성하고 고쳐 쓰기.
-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기.
- 다 쓴 글을 소리 내 읽어보기.

좋은 글을 위한 점검 질문

1. 글 쓴 사람이 보이는가?
2. 질문이 들어있는가?
3.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4. 이 글이 누구에게 도움을 줄까?
5. 애매하게 입장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가?

읽기 자료 3

1. 내가 책을 써야겠군!
2.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3. 아서 클라인먼 되기
4. 나는 엄마의 요양보호사입니다
5. 언어를 갖는다는 것
6. 반짝이는 박수 소리
7. 새끼들, 생명의 질감/8. 엄마에게 젖이 있다면 아빠에게는.../9. 완모파티
10. 미리 쓰는 유서/11. 그녀, 요나

쓰기 실습 3

1. 떠오르는 이에게 편지/유서 쓰기

2. 도입부 첫 문장과 첫 단락을

3. 책/영화/강의 한 문장 인용해서

자, 호보당당(虎步堂堂) 쓰는 거야!!



꿀벌 김화숙

휴대폰 : 010-3918-9217

이메일 : dream40k@hanmail.net

브런치 : <http://brunch.co.kr/@dream40k>

블로그 : <http://blog.naver.com/kkulbol>

